

그로스에 자원을 쓰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

Data Instrumentation

데이터 측정, 수집, 분석을 위한 도구 및 환경 갖추기

정량적 데이터 활용: Instrumentation



Event Tracking



데이터베이스



→ BLEND



이메일



분석

Instrumentation이 중요한 이유

-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해야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이 가능함
- 데이터 수집과 측정은 공짜가 아님
 - 사업의 목표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정의해야 함
 - 데이터 수집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함
 -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함
- 데이터 수집과 측정의 번거로움을 건너뛰고, ‘일단 마케팅’을 하면?
 - 잘 되어도 왜 잘 되었는지, 망해도 왜 망했는지 알 수 없음

Event Tracking 도구

- 많은 팀이 구글 애널리틱스(Google Analytics)를 사용함
- 제가 추천하는 툴: Amplitude, Mixpanel 등 후발 주자



‘후발 주자’ 툴의 장점

Google Analytics	Amplitude 등 후발 주자 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‘이벤트(Event)’ 보다는 ‘페이지 뷰(Pageview)’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함 →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음- 사용자 개개인 레벨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고, ‘총합’으로만 확인할 수 있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다양한 이벤트(페이지뷰, 클릭, 구매 등)를 사용자 개인 레벨로 측정할 수 있음

‘후발 주자’ 툴의 장점

Google Analytics	Amplitude 등 후발 주자 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퍼널(Funnel) 전환을 보고자 할 때, 해당 퍼널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- 모든 퍼널을 미리 정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, Google Analytics 사용자들의 Pain Point가 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퍼널을 미리 정의하지 않고도, 필요할 때마다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

‘후발 주자’ 툴의 장점

Google Analytics	Amplitude 등 후발 주자 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음-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비교적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- 차트를 만들고, 여러 관점을 적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비교적 쉬움

Instrumentation: 기본적인 툴

- Event-based Analytics: Amplitude, Mixpanel 등
- 광고를 위한 툴: Facebook Pixel
- A/B 테스트: Google Optimize
- CRM (이메일 마케팅): Klaviyo, Drip, Customer.io 등
- 여러 툴에 데이터 보내기: Google Tag Manager, Segment 등

데이터: '투자'가 필요한 '자원'

- 데이터 쌓는 것은 개발팀(엔지니어)의 일?
 - 마케터나 사업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일?
- 데이터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쌓는 것?
- 웹, 앱에서 기능은 일단 개발하고, 데이터 고민은 나중에?

데이터: ‘투자’가 필요한 ‘자원’

- 데이터 수집, 축적은 엔지니어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,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하는 일
 - 사업 부서(마케터 등): 자신들이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을지 고민하기
 - 엔지니어: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때,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축적할 방안 고민하고 구현하기
 - 툴 셋팅할 때 한 번 하고 마는 협력이 아닌, 사업을 하는 한 끊임없이 협력해야 함

데이터: ‘투자’가 필요한 ‘자원’

- 툴을 잘 사용하기 위한 공부 필요
 - 각 툴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
 -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
 - 데이터를 오류 없이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
 -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
- 툴 하나를 잘 공부해 두면, 다른 툴들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 - 여러 툴이 비슷한 멘탈 모델(Mental Model)을 가지고 만들어졌음
 - 한 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, 다른 툴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음

툴 공부 방법: 문서(도움말 + 기술 문서) 꼼꼼히 읽기!

- 툴 회사에서 제공하는 Learning 문서
 - Getting Started Guide부터...
- 툴 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영상
- 기술 문서
 - 꼭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, 읽어 보면 좋습니다.

8강 Key Takeaways

- 성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전에,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.
 -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
 - 잘 돼도 왜 잘 됐는지, 망해도 왜 망했는지 알기 위해
- Google Analytics 말고도 좋은 툴은 많습니다.
 - Amplitude 등 후발 주자
- 데이터는 ‘투자’가 필요한 자원입니다.
 - 사업 담당자와 기술 담당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일
 - 툴을 잘 사용하기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.